



즉시 사용

비고		
담당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 문화체육정책과	과장 조상준, 사무관 김월중 (044-200-2328, 2329)

작지만 큰 도서관, 바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 이낙연 국무총리, 효창동 작은도서관 방문, 관계자 격려 및 현장 확인 -

- 이낙연 국무총리는 7월 7일(금) 오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효창동 작은도서관을 방문하여 관계자를 격려하고, 이용자들과 즉석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 * 참석 : 김창민 효창동 주민자치위원장, 서경해 효창동 작은도서관 자치운영위원장, 정유미 효창동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 김애진 용산구 작은도서관 전담사서 등
- 이번 방문은 주민들이 친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일상 문화공간으로서 작은도서관이 잘 활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 이 총리는 서경해 효창동 작은도서관 자치운영위원장으로부터 시설 현황을 보고받은 후, 도서관 운영상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 이 자리에서 이 총리는 '흔히들 한국인들의 독서가 부족하다고 말하는데, 도서관 이용자는 엄청나게 늘고 있으며, 특히 주말에 마을주민들이 도서관에 가서 하루종일 책을 보시고 아이들과 함께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강조했다.

- 또, 책 읽는 사람이 아름다움·멋있음을 강조하는 공익광고를 활용하거나, 군부대 내 도서관의 책 종류 다양화, 병역기간 중 책읽기 운동 성공사례 홍보 등 독서 진흥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 아울러, '아이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라는 일본 속담을 인용하며, 아이들에 대한 본보기로서 책읽는 어른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 이어서 이 총리는 작은도서관을 찾은 어린이 이용자 등을 만나, 도서관 이용과 관련한 불편사항은 없는지 세심히 살폈다.

※ (붙임) 효창동 작은도서관 현황

□ 시설 개요

- 운영자 : 효창동 작은도서관 자치운영위원회
 - ※ 자치운영위원회 구성 : 서경해 위원장 등 16명
- 소재지 : 용산구 효창원로 161, 3층 (효창동주민센터, 효창동)
- 개관일 : 2004. 2월
- 일반현황 : 규모 60평(169m²) / 열람석 40석 / 보유장서 14,429권

□ 운영 현황

- 근무자 : 자원봉사자 순환 근무
- 개방시간 : 평일 13:00 ~ 17:00 (4시간)
- 도서대출 : 5일 / 3권
- 이용자수 : 1일 평균 30여명
- 프로그램 : 독서감상화 그리기 대회, 어린이 독서논술 교실



도서관 내부 전경



유아 공간